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A Study on the Urban Housewives' Economic Well-Being According
to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계선자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강 사 한정화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Dept. of Home Management Anseo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Chung Wha, H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모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me related factors which influence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of the urban housewives, based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1,800 housewives residing in Seoul. The 1261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urban housewiv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the objective variables, the perceptions of the subjective variables, the conjugal variables,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2)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perceptions of the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by the urban housewives were in the rank of the perceptions of the subjective variables($R^2=.37$), the objective variables($R^2=.33$) and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R^2=.28$).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rmediary variables such as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re essential elements for comprehending the urban housewives' economic well-being. According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value of family remains important factors to guide in despite the radical changes. If greater attentions should be directed to the social welfare, the quality of family life could be improved and stabilized.

1. 서 론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면서, 과거에 부를 과시하던 가전제품이 광범위하게 보급화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4,517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10,076달러로 세계 29위이다. 가정내 내구재 소비추이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컬러TV의 경우 1980년의 3.2대에서 1995년 1,958.3대로 53.4%의 성장률을 보였고, 냉장고의 경우 1980년의 4.9대에서 1995년 929.6대로 41.9%의 성장률을 나타냈다(통계청, 1996, p.277, 55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속한 가전제품의 보급과 경제성장속에서 객관적인 풍요는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한국인의 정서적인 풍요로움, 즉 경제복지감에 실제로 연계되는 지는 알 수 없다. 앞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경험한 나라들의 연구에 의하면, 물질적 풍요와 경제복지감간에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inter, 1984; Wilhelm & Iams, 1986, p.149).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이는 단지 16.9%에 불과하였다(한국인의 사회지표, 1996, p.121).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율 감소,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9%인데 반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74.7%로 매우 높은 편이다(통계청, 1996, p.52, 76). 이와 같이 기혼여성이

취업 전선에 가담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의 교육비, 주택마련,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과 자아실현, 사회참여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oster등(1981, p.193)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취업이 점차 영구 직종으로 변화함에 따라 탁아비, 교통비, 의상비, 가전기구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지만, 맞벌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은 가정내 경제복지감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은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감에도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가 수직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도와주며, 가족적응력은 여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게 하여준다.

가족체계속에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에 따라 주부가 느끼는 가정의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경제적 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복지감은 객관적인 경제수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경제복지감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진정한 경제복지감의 측정과 가족의 경제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경제복지감의 향상은 모든 사회 내에서의 중심 목표이며, 사회의 양상과 체제가 다들지라도 어떻게 개인의 경제복지감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은 전세계인의 궁극적 목표로 남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실 점에서 주부가 느끼는 경제복지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경제복지감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객관적 경제변인, 주관적 변인, 부부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부 중심의 평등주의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가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가족에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이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연결과 분리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가족유형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째,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과잉분리, 둘째, 응집력이 적당히 낮은 분리, 셋째, 응집력이 적당히 높은 연결, 넷째,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밀착으로 구분지었다.

어느 집단이거나 그 집단 내 구성원들은 구성원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인 응집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Minuchin(1974)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 규칙으로 경계의 개념을 사용하여, 경계가 분산되어 있어 하위체계들간에 심한 간섭이 있을 경우 밀착된 가족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과잉분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Olson과 Portner(1983, pp.299~300)에 의하면, 가족응집력이란 가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 정도,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여가공유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Rosenbalt와 Titus(1976)의 연구에 의하면, '결합-분리'의 연속체

로 가족응집력을 고찰하였다.

응집력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간 정도의 가족응집력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Galvin과 Brommel, 1982; Minuchin, 1974; Carpenter, 1983; Clake, 1984; Lavee, 1985; Rodick et al., 1986; Olson, 1988)와 가족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Kennedy, 1984; Herring, 1985; Smith, 1985)로 구분된다.

2. 가족적응력

가족적응력이란 가족 내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가 갖는 상황성 및 가족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대한 가족체계의 대처능력으로,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 가족적응력 수준은 변화의 대처능력에 따라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네 가지 수준의 가족적응력으로 구분된다.

Olson과 Defrain(1994, pp.48~55)은 가족적응력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가족적응력을 상호 주장적인 대화, 지도력의 공유, 부모의 자녀 훈육방법, 성공적인 역할타협, 역할의 공유 및 융통성 있는 가족규칙의 6가지 변인들로 측정하였다.

가족적응력과 가족의 기능은 곡선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만족감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응력이 매우 낮은 경직된 가족과 적응력이 매우 높은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 가족기능으로 나타나며, 가족적응력이 적당히 구조화된 가족과 융통성 있는 가족은 가족기능이 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3. 경제복지감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경제복지를 현재의 생활수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의복, 식품, 주택, 교통의 재화와 용역의 구배

에 따른 소비수준에의 만족도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종, 연령, 수입,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변인들을 경제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찰하였다(Strumpel, 1973, pp.114~115;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p.375~376).

Winter와 그의 동료들(1984)은 경제복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수입과 부 같은 객관적 경제복지보다 개인 및 가정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느끼고 평가하는 주관적 경제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었다.

Rudd의 연구(1981)에 의하면 경제복지감을 12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수입의 적정성인지, 현재 고용상태의 만족도, 수입에의 만족도, 생활수준에의 만족도, 저축에의 만족도, 물가상승에 따른 수입인지, 소비수준의 변화에 대한 욕구, 순자산에의 만족도,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자원예의 만족도, 가족의 재정상황이 5년후 미래에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 가족의 미래상태에 대한 기대,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후의 생활예상에 대한 만족도가 그 요인들이다.

Emmons와 Diener(1985)는 객관적 복지감이 주관적인 복지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복지감을 연구하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가치관, 사회에의 비교감, 열망수준의 심리적 과정을 고찰하였고, 긍정적 가치관과 사회에의 비교감이 복지감을 예견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Thoresen(1985)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복지 인지와 부부만족도, 총체적 복지간에 주요 상관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복지수준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경제복지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Wilhelm과 Iams(1986, pp.146~149)는 주관적 복지(소득적정감, 생활전반에의 만족도, 과거 5년 동안의 재정상태지각, 미래 5년 안의 재정상태지각, 타가정과의 경제능력 비교감, 자원능력에의 만족감)가 객관적 복지(소득, 부채액, 주택가격) 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복지감이란 수입, 교육, 직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르는 객관적 경제복지 뿐만 아니라, 개인이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여 볼 때 스스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복지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복지감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 자산의 증가, 원하는 수준의 소비생활, 응급한 경제상황시 경제대처 능력 및 노후 자금마련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는 복지감으로 규정하였다.

4.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력의 경우, 조미환(1990), 이종숙(1989), 김재경·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Danielwicz(1978, pp.54~56)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Newton(1979, p.44)의 연구와 임정빈 등의 연구(1993)에서는 학력과 경제복지감과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박미금(1993, p.83)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Mammem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 건강할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 건강상태와 경제복지감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형태의 경우, 옥선화의 연구(1991, pp.151~152)에서, 쾌적한 조건을 가진 주택의 확보문제가 경제복지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연숙 등, 1991; 박미금, 1993, p.83; Mammem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1981).

직업의 경우, Danielwicz(1978, pp.88~90)의 전형적 가족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들은 취업에 대한 평등의식이 클수록, 부인이 전문직이 아닐수록 수입 적정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져서 경제복지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Mammem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 pp.125~128)에서도 취업한 주부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임정빈의 연구(1987)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김재경·문숙재의 연구(1992)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경

제복지감이 높았다. Hafstrom의 연구(1981, p.82)에서는 남편의 직업이나 부인의 직업은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가족발달주기의 경우, 경제지출 및 경제손실에 대한 문제는 자녀결혼기, 가정형성기, 자녀대학교육기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임정빈·조혜정, 1993).

2) 객관적 경제변인

Davis의 연구(1981, pp.93~95)에 의하면, 순자산이 높을수록, 정규 수입을 받는 사람일수록, 재정적 열망이 낮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Wilhelm과 Iams(1988, pp.144~145)는 객관적 복지감에 주요 영향 변수로 수입 수준, 필요로 하는 화폐의 양,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양, 저축의 양, 미래에의 저축을 들었다. Mueller와 Hira의 연구(1984, p.169)에 의하면, 화폐관리기술이 경제복지감에 주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부채액이 적을수록, 신용카드를 더 많이 가족원들이 사용할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더 나은 화폐관리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예산의 가치가 부각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평가하고 소비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었다.

3)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의 경우, 근무여건이 근무자의 태도, 열망, 가치관의 변화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Andrew & Withey, 1978). Galligan과 Bahr(1978)의 연구에서는 직업, 교육, 수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긍정적으로 부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치 사슬고리처럼 교육은 직업에, 직업은 수입에, 수입은 부부 안정과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상대적 만족감은 자기 가계의 소득, 소비 수준이 다른 가계의 수준을 능가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적을수록 가정의 경제복지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 1988: 김연정, 김순미, 1991, p.159)

경제정책만족도의 경우, Rudd의 연구(1981)에 의하면 정부의 물가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높게 만족

하는 집단이 경제복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보다는 남편이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여가생활만족도의 경우, Mammem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 여가를 즐길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 여가활동과 경제복지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afstrom의 연구(1981, p.80)에 의하면, 배우자와 보내는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복지감을 높게 인지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생활수준만족도의 경우, Rudd(1981)는 생활수준에 주관적으로 만족한 경우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지한 것이 경제복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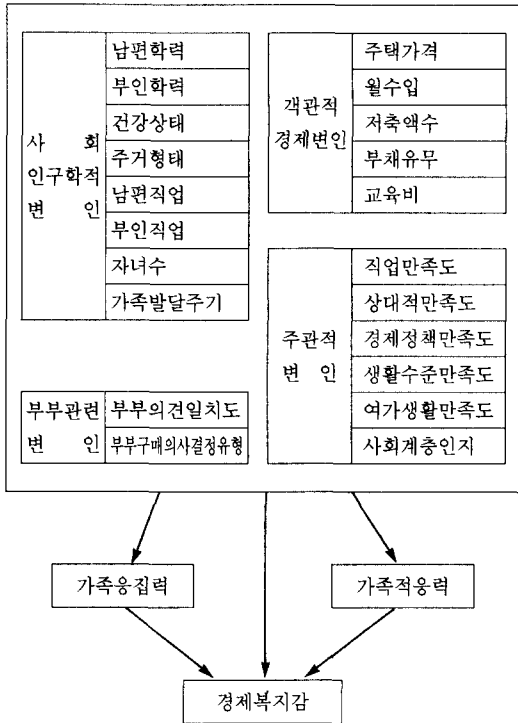
4) 부부관련변인

부부의견일치도의 경우, Danielwicz(1978, pp.54~56)는 전형적 가족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의견일치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상승하였다. Slush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 결과 부부간의 의견일치는 비록 자원이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보다 밝은 심리적 건강을 부여하여, 실제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ilhelm과 Iams(1986, pp.147~148)는 수입 수준, 필요로 하는 화폐의 양,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경제능력, 부채의 양, 저축의 양, 미래의 저축에 대한 부부간의 강한 의견일치를 보일 경우 경제복지감도 상승하였다.

부부 구매의사결정유형의 경우, 전인선(1983)은 지출액이 고가이고 구매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공동의사결정은 많아지는 경향이며, 남편과 부인의 지위가 사회적, 재정적, 심리적으로 동등하면 공동의사결정이거나 자율적 의사결정이 많고 이 부분에서 남편이 우세하면 남편 지배적이고 부인이 우세하면 부인 지배적 경향이 있다고 밝히었다.

Ⅲ. 연구문제 및 모형

1. 이론모형의 구성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도시 주부의 일반적 배경과 객관적 경제변인에 대한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독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객관적 경제변인, 주관적 변인, 부부관련변인)은 도시 주부의 가족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3〉 독립변인은 도시 주부의 가족적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4〉 매개변인인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은 도시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5〉 도시 주부의 독립변인, 매개변인(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과 종속변인(경제복지감)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3. 조사도구의 선정

1)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남편학력, 부인학력, 건강상태, 주거형태, 남편직업, 부인직업, 자녀수, 가족발달주기의 8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객관적 경제변인은 Mueller와 Hira(1984), Davis와 Helmick(1985), Wilhelm과 Iams(1986, pp.146-148), Prather(1990), 박미금(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택가격, 월수입, 저축액, 부채유무, 교육비에 따른 객관적인 경제상태의 5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변인은 Danielwicz(1978, pp.65-74), Hafstrom(1981), Mammen과 그의 동료들(1981)과 Rudd(198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직업만족도(3문항), 상대적 만족도(4문항), 경제정책만족도(2문항), 생활수준만족도(5문항), 여가생활만족도(3문항), 주관적 사회계층인지(1문항)의 6개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부부관련변인은 Danielwicz(1978), Hafstrom(1981)과 Mamme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1), Jean(1986, p.7), Wilhelm과 Iams의 연구(1988, p.149)를 기초로 하여, 부부 의견일치도(5문항), 부부 구매의사결정유형(7문항)의 2개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부부 의견일치도는 가정생활에 대해 부부 의견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부부 구매의사결정유형은 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부부공동형, 부부자율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매개변인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ro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3번째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응집력을 평가하는 문항 10개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 관계 및

가족의 여가에 대한 관심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적응력을 평가하는 문항 9개는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규칙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 종속변인

경제복지감은 Moen(1980), Davis와 Helmick(1985), Emmons와 Diener(1985), Wilhelm과 Iams(1986), Winter, Morris와 Rubic(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지난 5년간의 과거, 현재, 다가올 5년후의 미래의 시점에서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 자산의 증가, 원하는 수준의 소비생활, 응급시 대처능력 및 노후자금 마련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고 예견하는 각각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 경제복지감은 각각 5문항으로 되어있다.

4.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변인들의 최종 신뢰도 계수이다.

<표 1> 변인별척도의 신뢰타당도

구 분	변 인	문 항 수	α 계수
독립 변인	직업만족도	3	.71
	상대적 만족도	4	.90
	경제정책만족도	2	.73
	생활수준만족도	4	.74
	여가생활만족도	3	.69
	부부의견일치도	5	.84
매개 변인	가족응집력	10	.67
	가족적응력	9	.73
종속 변인	과거경제복지감	5	.76
	현재경제복지감	5	.61
	미래경제복지감	5	.92

5.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00부의 예비조사를 1996년 6월17일부터 6월24일까지 요인분석과 panel test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 보완, 수정하여 1,800부의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시기는 1996년 9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1,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실기재 등을 제외한 1,26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6.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신뢰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단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인이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 또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넷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및 경제복지감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주부의 연령은 40대(55.4%)가, 남편학력은 대졸집단(59.6%)이, 부인학력은 고졸이하집단(42.6%)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건강상태는 대부분 건강한 편이 64.3%이었고, 주거형태는 아파트(68.8%)가 거주가 가장 많았다. 가족발달주기를 살펴보면, 첫자녀가 취학전(22.5%)과 중학생(22.5%)일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 = 1,261)

변 인	구 분	빈 도	%
부 인 연 령	30 대 이하	401	31.8
	40 대	698	55.4
	50 세 이상	162	12.8
남 편 학 령	고 졸 이하	292	23.2
	대 졸	752	59.6
	대학원졸이상	217	17.2
부 인 학 령	고 졸 이하	737	42.6
	대 졸 이상	724	57.4
건 강 상 태	만성적지병있음	88	7.0
	보통인 편	362	28.7
	건강한 편	811	64.3
주 거 형 태	아 파 트	867	68.8
	단 독	191	15.1
	연 립 및 기타	203	16.1
자 녀 수	1 명	180	14.3
	2 명	848	67.2
	3 명 이상	233	18.5
가족발달주기 (기준:첫자녀위치)	취학전	282	22.4
	초등학교	230	18.2
	중학교	283	22.5
	고등학교	251	19.9
	대학교이상	215	17.0
남 편 직 업	비숙련·판매직	272	21.5
	사무직	494	39.2
	관리·전문직	495	39.3
부 인 직 업	전업주부	895	71.0
	비숙련·판매직	149	11.8
	사무·관리직	217	17.2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경제변인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주택가격은 5천만 - 1억 원미만이 26.7%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은 200만원미만(39.6%)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남편직업은 관리·전문직이 39.3%이었고, 부인직업은 전업주부가 주를 이루었다(71%). 저축액수는 50만원미만 경우(48.1%), 부채가 없는 경우(77.9%), 교육비는 30만 - 60만원 경우(43.7%)가 가장 많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경제변인(N = 1,261)

변 인	구 분	빈 도	%	
주 택 가 격	5천만원미만	271	21.5	
	5천-1억원미만	337	26.7	
	1억-2억원미만	303	24.0	
	2억-3억원미만	150	11.9	
	3억원이상	200	15.9	
	월 수 입	200만원미만	499	39.6
		200만-300만원미만	378	30.0
300만-400만원미만		135	10.7	
400만원이상		249	19.7	
저 축 액 수	50만원미만	600	48.1	
	50만-100만원미만	463	36.7	
	100만원이상	192	15.2	
부 채 유 무	없 다	982	77.9	
	있 다	279	22.1	
교 육 비	30만원미만	280	22.2	
	30만- 60만원미만	551	43.7	
	60만-100만원미만	193	15.3	
	100만원이상	237	18.8	

2. 주부의 독립변인에 따른 가족응집력

주부들의 가족응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족응집력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인학력이 높을수록($\beta=.08$), 건강상태가 나쁠수록($\beta=-.12$), 남편직업중 관리·전문직에 종사할수록($\beta=.07$), 부인직업중 사무·관리직에 종사할수록($\beta=.10$)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객관적 경제변인의 경우, 저축액수가 많을수록($\beta=.14$) 가족의 응집력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변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인과 비교할 때 자신에 만족할수록($\beta=.15$), 경제정책에 만족할수록($\beta=.07$), 생활수준에 만족할수록($\beta=.13$),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beta=.08$)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부부관련변인을 살펴보면 부부의견일치도가 높을수록($\beta=.49$), 부부구매의사결정중 남편우위형이 아닐수록($\beta=-.10$) 가족의 응집력이 높았다.

독립변인별로 가족응집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4〉 가족응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가족응집력		설명력과 유의도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	-	상수 = 3.76 F 비 = 13.07 *** R ² = .05 Durbin Watson 계수 = 1.97	
	부인학력	.07	.08**		
	긴장상태	-.09	-.12***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	-		
	D2(단독주택)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12	-.11*		
	D4(관리·전문직)	.07	.07*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D6(사무·관리직)	.12	.10***			
자녀수	-	-			
가족발달주기	-	-			
객관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	-	상수 = 3.56 F 비 = 22.87*** R ² = .03 Durbin Watson 계수 = 1.98	
	월수입	-	-		
	저축액수	.09	.14***		
	부채유무(기준: 부채있음)				
	D7(부채없음)	-	-		
교육비	-	-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	-	-	상수 = 3.34 F 비 = 21.84 *** R ² = .07 Durbin Watson 계수 = 1.89	
	상대적만족도	.11	.15***		
	경제정책만족도	.05	.07*		
	생활수준만족도	.09	.13***		
	여가생활만족도	.04	.08**		
	사회계층인지	-	-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32	.49***	상수 = 3.11 F 비 = 215.82 *** R ² = .26 Durbin Watson 계수 = 1.99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14	-.10***		
	D9(부인우위형)	-	-		
	D10(부부공동형)	-	-		

※ * P < .05 ** P < .01 *** P < .001

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1단계에서는 6%의 설명력을 보였고, 객관적 경제변인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로 증가하여 총 7%의 설명력을 보였고,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3단계에서는 6%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13%의 설명력을 보

였고, 부부관련변인을 추가한 4단계에서는 19%의 설명력이 추가한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가족응집력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가족응집력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부부관련변인으로, 부부가 상품구입, 금전지출, 자녀문제, 시댁

〈표 5〉 가족응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가족응집력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	-	-	-	-	-	-	-	
	부인학력	.06	.07*	.06	.07*	.06	.07*	.04	.05*	
	건강상태	-.09	-.12***	-.09	-.12***	-.08	-.10***	-.03	-.05*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	-	-	-	-	-	-	-	
	D2(단독주택)	-	-	-	-	-	-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11	-.10**	-.11	-.10**	-.12	-.11**	-.05	-.05*	
	D4(관리·전문직)	.07	.07*	.08	.09**	.12	.12***	.09	.10***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	-	-	-	-	-		
D6(사무·관리직)	.09	.12***	.07	.06*	.05	.04*	.06	.05*		
자녀수	-	-	-	-	-	-	-	-		
가족발달주기	-	-	-	-	-	-	-	-		
객관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	-	-	-	-	-	
	월수입			-	-	-	-	-	-	
	저축액수			.07	.11***	.04	.07*	.05	.07*	
	부채유무(기준: 부채있음)			-	-	-	-	-	-	
	D7(부채없음)			-	-	-	-	-	-	
교육비			-.04	-.08*	-.04	-.08*	-	-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					-	-	-	-	
	상대적만족도					.09	.13***	.07	.09**	
	경제정책만족도					.06	.08**	.05	.07**	
	생활수준만족도					.09	.14***	.05	.08**	
	여가생활만족도					.04	.07**	.03	.05*	
사회계층인지					-	-	-	-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18	.24***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13	-.09**	
	D9(부인우위형)							-	-	
D10(부부공동형)							-	-		
상수			3.79		3.69		3.44		2.94	
F비			5.98***		5.57***		7.44***		20.88***	
R ²			.06		.07		.13		.32	
R ² 증가량					.01		.06		.19	
Durbin Watson 계수			1.98		1.98		1.91		1.95	

* * P < .05 ** P < .01 *** P < .001

문제의 제반 가정생활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인다면 이것이 부부의 밀착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친밀감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이 가족구성원을 연결시키는 커다란 고리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결과이다.

3. 주부의 독립변인에 따른 가족적응력

주부들의 가족적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가족적응력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 학력이 높을수록($\beta=.18$), 남편직업중

<표 6> 가족적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가 족 적 응 력		설명력과 유의도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17	.18***	상 수 = 2.79 F 비 = 16.96 *** R ² = .05 Durbin Watson 계수 = 1.80
	부인학력		-	-	
	건강상태		-	-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	-	
	D2(단독주택)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	-	
	D4(관리·전문직)		.10	.07*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D6(사무·관리직)		.16	.10***		
자녀수		-	-		
가족발달주기		-	-		
객관 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	-	상 수 = 3.11 F 비 = 5.24*** R ² = .03 Durbin Watson 계수 = 1.80
	월수입		.03	.07*	
	저축액수		.05	.07*	
	부채유무(기준: 부채있음)				
D7(부채없음)		-	-		
교육비		-.06	-.10**		
주관 적 변인	직업만족도		.07	.08**	상 수 = 2.81 F 비 = 12.25 *** R ² = .04 Durbin Watson 계수 = 1.79
	상대적만족도		.15	.16***	
	경제정책만족도		-	-	
	생활수준만족도		.08	.10***	
	여가생활만족도		.06	.08**	
	사회계층인지		-	-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20	.24***	상 수 = 2.81 F 비 = 30.85 *** R ² = .08 Durbin Watson 계수 = 1.82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08	-.08**	
	D9(부인우위형)		-.11	-.08**	
	D10(부부공동형)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가족적응력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가 족 적 응 력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15	.17**	.17	.19***	.17	.18***	.17	.18***	
	부인학력	-	-	-	-	-	-	-	-	
	건강상태	-	-	-	-	-	-	-	-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	-	-	-	-	-	-	-	
	D2(단독주택)	-	-	-	-	-	-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	-	-	-	-	-	-	-	
	D4(관리·전문직)	.08	.06*	.09	.06*	.08	.06*	.12	.08**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	-	-	-	-	-	
D6(사무·관리직)	.12	.08*	.12	.08*	.10	.07*	.10	.06*		
자녀수	-	-	-	-	-	-	-	-		
가족발달주기	-	-	-	-	-	-	-	-		
객관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	-	-	-	-	-	
	월수입			-	-	.06	.10**	.05	.09**	
	저축액수			.07	.08**	.07	.08*	.06	.08**	
	부채유무(기준: 부채있음)			-	-	-	-	-	-	
	D7(부채없음)			-	-	-	-	-	-	
교육비			-.06	-.10**	-.06	-.10**	-.05	-.08*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					.06	.07*	.06	.07*	
	상대적만족도					.16	.17***	.14	.15***	
	경제정책만족도					-	-	-	-	
	생활수준만족도					.07	.09**	.10	.12***	
	여가생활만족도					.05	.07*	.04	.06*	
	사회계층인지					.06	.07*	.06	.07*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18	.22***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21	-.11**	
	D9(부인우위형)							-.19	-.14***	
D10(부부공동형)							-	-		
상 수		2.93		2.78		2.53		2.27		
F 비		5.18***		4.64***		5.50***		8.07***		
R ²		.05		.06		.10		.15		
R ² 증가량				.01		.04		.05		
Durbin Watson 계수		1.81		1.80		1.80		1.83		

* * P < .05 ** P < .01 *** P < .001

관리·전문직에 종사할수록($\beta=.07$), 부인직업중 사무·관리직에 종사할수록($\beta=.10$) 가족적응력이 더 높았다. 객관적 경제변인의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beta=.07$), 저축액수가 많을수록($\beta=.07$), 교육비지출이

적을수록($\beta=-.10$) 가족의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환경에 만족할수록($\beta=.08$), 상대적으로 자신에 만족할수록($\beta=.16$), 생활수준에 만족할수록($\beta=.10$),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beta=.08$) 가족적응력이 높았다. 부부관련변인의 경우 부부의견이 일치할수록($\beta=.24$), 부부구매의사결정중 남편우위형과 부인우위형이 아닐수록($\beta=-.08$) 가족의 적응력이 높았다.

독립변인별로 가족적응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1단계에서는 5%의 설명력을 보였고, 객관적 경제변인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로 증가하여 총 6%의 설명력을 보였고,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3단계에서는 4%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10%의 설명력을 보였고, 부부관련변인을 추가한 4단계에서는 5%의 설명력이 추가한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가족응집력과 마찬가지로 가족적응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은 부부관련변인으로 핵가족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부간의 의견일치나 부부구매의사결정시 대화정도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하고 원활한 부부간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전제된다면, 이는 부부간의 밀착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4. 주부의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및 경제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주부들의 경제복지감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부의 경제복지감에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beta=.08$), 남편직업중 관리·전문직에 종사할수록($\beta=.17$), 부인직업중 사무·관리직에 종사할수록($\beta=.11$), 가족발달주기가 초기단계일수록($\beta=-.18$)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 건강상태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이 다시 경제복지감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발달주기가 낮은 단계일수록 높은 경제복지감수준을 보였는데, 자녀의 고등학교시기는 대학입시라는 큰 판문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집안의 가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의미의 '고3

가장'이라는 신종어가 나올 정도로 그 집안의 대학입시문제가 모든 가족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경제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육시기도 과도한 교육비부담 등으로 경제복지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적 경제변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beta=.07$), 저축액수가 많을수록($\beta=.07$), 교육비지출이 적을수록($\beta=-.10$)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이 현재나 과거의 구매력을 감소시킬지라도 저축을 통해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경제복지감에 기여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지출이 가계부담을 유발하리라 예견되며, 자녀수에 따라 부과되는 실질적 경제부담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변인의 경우 직업에 만족할수록($\beta=.08$), 상대적 만족할수록($\beta=.16$), 생활수준에 만족할수록($\beta=.10$),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beta=.08$) 경제복지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론하면 자신의 직업보다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우리의 사회풍습 결과로, 남편의 직장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주부일수록 경제복지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부는 편리한 가사기기의 보급, 핵가족화, 자녀교육의 사회이양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주부가 혼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하에서 주부가 여가활동을 보내는 지출비가 증가되더라도 여가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경우, 긍정적 경제복지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관련변인의 경우 부부의견이 일치할수록($\beta=.24$), 부부 구매의사결정유형중 남편우위형과 부인우위형이 아닐수록($\beta=-.08$) 경제복지감이 높았다. 즉, 부부간의 상품구입, 금전지출, 자녀문제, 시댁문제 등 가정생활문제에 대해 남편과 의견일치를 하는 것이 가정내 주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매개변인에 따른 영향력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응집력중 과잉분리($\beta=-.22$), 가족응집력중 연결될수록($\beta=.09$), 밀착될수록($\beta=.17$), 가족적응력중 구조적일

〈표 8〉 경제복지감에 대한 변인군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배경변인		종속변인	경제복지감		
			b	β	설명력과 유의도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	-	상 수 = 3.34 F 비 = 18.44 *** R ² = .07 Durbin Watson 계수 = 1.79	
	부인학력	-	-		
	건강상태	.10	.08**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	-		
	D2(단독주택)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	-		
	D4(관리·전문직)	.26	.17***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D6(사무·관리직)	.22	.11***			
자녀수		-			
가족발달주기	-.06	-.18***			
객관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03	.07*	상 수 = 2.12 F 비 = 119.84*** R ² = .33 Durbin Watson 계수 = 1.85	
	월수입	-	-		
	저축액수	.05	.07*		
	부채유무(기준: 부채있음)				
	D7(부채없음)	-	-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	.07	.08**	상 수 = 1.37 F 비 = 146.28 *** R ² = .37 Durbin Watson 계수 = 1.82	
	상대적만족도	.15	.16***		
	경제정책만족도	-	-		
	생활수준만족도	.08	.10***		
	여가생활만족도	.06	.08**		
	사회계층인지	-	-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20	.24***	상 수 = 2.86 F 비 = 54.21 *** R ² = .05 Durbin Watson 계수 = 1.71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08	-.08**		
	D9(부인우위형)	-.11	-.08**		
	D10(부부공동형)	-	-		
매개 변인	가족응집력(기준: 분리)			상 수 = 3.22 F 비 = 16.20 *** R ² = .28 Durbin Watson 계수 = 1.79	
	D11(과잉분리)	-.66	-.22***		
	D12(연결)	.13	.09**		
	D13(밀착)	.29	.17***		
	가족적응력(기준: 경직)				
	D14(구조)	.09	.06*		
	D15(융통)	-	-		
D16(혼돈)	-.08	-.06*			

※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경제복지감에 대한 변인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종속변인		경제복지감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남편학력	-	-	-	-	-	-	-	-	-	-	-	-
	부인학력	-	-	-	-	-	-	-	-	-	-	-	-
	건강상태	.10	.08**	.10	.09**	.10	.08**	.10	.08**	.10	.08**	.10	.08**
	주거형태(기준: 연립주택)												
	D1(아파트)	.10	.07*	-	-	-	-	-.12	-.06*	-	-	-	-
	D2(단독주택)	-	-	-	-	-	-	-	-	-	-	-	-
	남편직업(기준: 사무직)												
	D3(비숙련·판매직)	-	-	-	-	-	-	-	-	-	-	-	-
	D4(관리·전문직)	.25	.17***	.25	.17***	.24	.16***	.25	.17***	.26	.17***	.26	.17***
	부인직업(기준: 비숙련·판매직)												
D5(주부)	-	-	-	-	-	-	-	-	-	-	-	-	
D6(사무·관리직)	.29	.15***	.16	.08*	.18	.10**	.20	.10***	.22	.11***	.22	.11***	
자녀수	-	-	-	-	-	-	-	-	-	-	-	-	
가족발달주기	-.08	-.15***	-.10	-.18***	-.09	-.16***	-.10	-.18***	-.10	-.18***	-.10	-.18***	
개관적 경제 변인	주택가격			.06	.10**	.03	.06*	.03	.06*	.04	.07*		
	월수입			-	-	-	-	-	-	-	-		
	저축액수			.33	.33***	.24	.24***	.25	.24***	.24	.24***		
	부채유무(기준: 부채없음)												
D7(부채없음)			-	-	-	-	-	-	-	-			
교육비			-.07	-.10**	-.07	-.09**	-.07	-.08**	-.06	-.10**			
주관적 변인	직업만족도					.09	.08***	.09	.08***	.09	.08***		
	상대적만족도					.24	.21***	.23	.20***	.23	.20***		
	경제정책만족도					-	-	-	-	-	-		
	생활수준만족도					.07	.06**	.07	.06**	.08	.07***		
	여가생활만족도					.20	.19***	.19	.18***	.17	.16***		
	사회계층인지					-	-	-	-	-	-		
부부 관련 변인	부부의견일치도							.11	.10***	.06	.05*		
	부부구매의사결정(기준: 부부자율형)												
	D8(남편우위형)							-	-	-	-		
	D9(부인우위형)							-	-	-	-		
D10(부부공동형)							-	-	-	-			
매개 변인	가족응집력(기준: 분리)												
	D11(과잉분리)											-.26	-.22***
	D12(연결)											.17	.09**
	D13(밀착)											.29	.17***
	가족적응력(기준: 경직)												
	D14(구조)											.09	.06*
D15(융통)											-	-	
D16(혼돈)											-.11	-.06*	
상수	3.07		2.25		1.29		1.14		1.85				
F비	8.26***		39.21***		53.96***		47.57***		31.94***				
R ²	.08		.35		.50		.51		.73				
R ² 증가량			.27		.15		.01		.22				
Durbin Watson 계수	1.78		1.90		1.96		1.95		2.03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인과효과

독립변인	주 관 적 경 제 복 지 감					
	종속변인 총체적 효과	인 과 효 과			비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 접 효 과			전체 효과
건강상태	.11	.08	가족응집력경유: -.010		.070	.040
남편직업(관리·전문직)	.17	.17	가족응집력경유: .021	가족적응력경유: .006	.197	-.027
부인직업(사무·관리직)	.06	.11	가족응집력경유: .010	가족적응력경유: .004	.124	-.064
가족발달주기	-.10	-.18			-.180	.080
주택가격	.23	.07			.070	.160
저축액수	.47	.24	가족응집력경유: .015	가족적응력경유: .006	.261	.209
교육비	-.08	-.10	가족적응력경유: -.006		-.106	.026
직업만족도	.30	.08	가족적응력경유: .005		.085	.215
상대적만족도	.52	.20	가족응집력경유: .019	가족적응력경유: .010	.229	.291
생활수준만족도	.47	.07	가족응집력경유: .017	가족적응력경유: .008	.095	.375
여가생활만족도	.18	.16	가족응집력경유: .010	가족적응력경유: .004	.174	.006
부부의전일치도	.40	.05	가족응집력경유: .050	가족적응력경유: .015	.115	.285
가족응집력중과잉분리	-.26	-.22			-.220	-.04
연 결	.07	.09			.090	-.020
밀 착	.15	.17			.170	-.002
가족적응력중 구 조	.10	.06			.060	.040
혼 돈	-.06	-.06			-.06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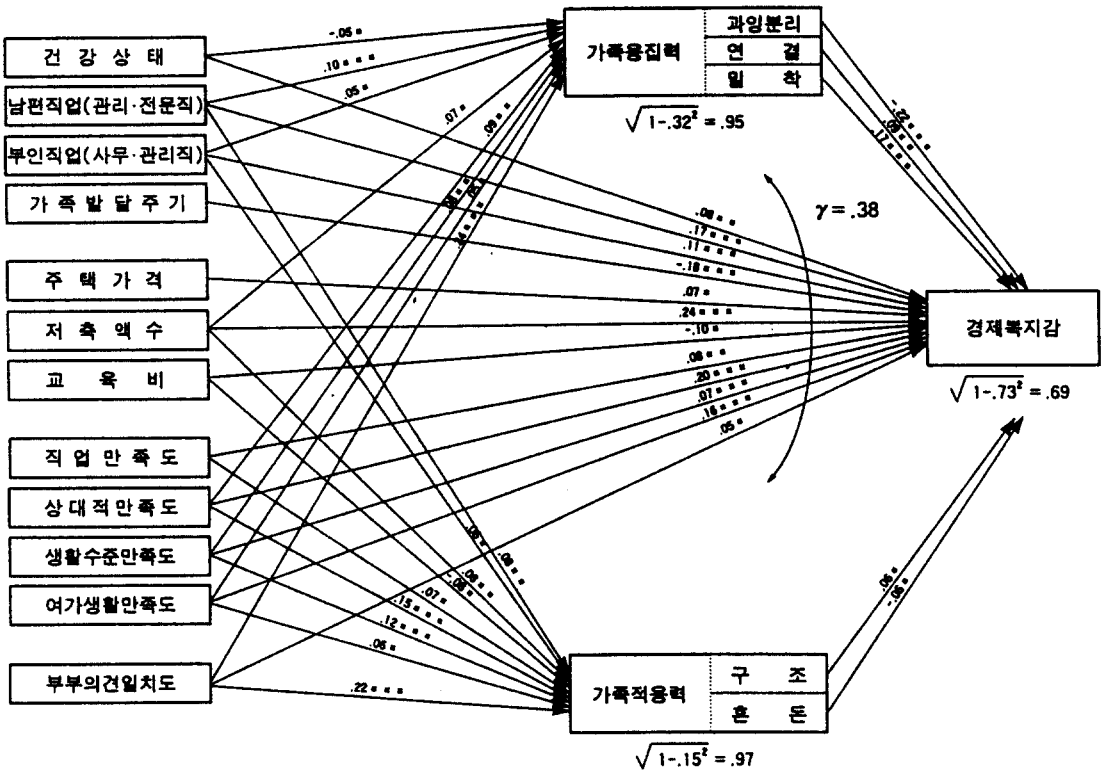
수룩($\beta=.06$), 혼돈하지 않을수록($\beta=-.06$) 경제복지감이 높았다.

독립변인별로 가족적응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1단계에서는 8%의 설명력을 보였고, 객관적 경제변인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7%로 증가하여 총 35%의 설명력을 보였고,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3단계에서는 15%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50%의 설명력을 보였고, 부부관련변인을 추가한 4단계에서는 1%의 설명력이 추가한 5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추가한 5단계에서는 2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7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주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경제복

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족원간에 서로 밀착된 관계나 가족들이 문제해결에 있어 융통적으로 주부가 문제해결에 우선적으로 임한다면, 가족들이 서로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얻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제적 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많이 사회로 이양되고 핵가족화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전한 가족문화는 정신적인 행복과 함께 최종적으로 경제복지감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은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속에서 강조될수록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며, 가족의 응집력향상과 적절한 수준의 가족적응력을 위해서 부부를 비롯한 온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인과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는 〈표 10〉에 요약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2〉의 인과모형을 도식화하였다.

V. 결론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주부가 건강할수록, 남편직업이 관리·전문직일수록, 부인직업이 사무·관리직일수록, 가족발달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더 높았다. 객관적 경제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저축액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지출이 적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변인의 영향력 정도를 보면, 직업에 만족할수록, 상대적으로 만족할수록, 생활수준에 만

족할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복지감이 더 높았다. 부부관련변인을 살펴보면 부부의견이 일치할수록, 부부 구매의사결정유형중 남편우위형이나 부인우위형이 아닐수록 더 높은 경제복지감을 나타냈다. 매개변인에 따른 영향력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응집력이 밀착될수록, 가족적응력이 구조적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더 높았다. 독립변인군은 51%의 설명력을 보였고,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추가한 결과 2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73%의 설명력을 지녔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많이 이양되고 가정의 중요성이 약화, 희석되어지는 현시점에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문화정착은 가족에게 정신적인 행복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최종적으로 가정내에서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 조차 모든 가치척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실질적 경제수준의 향상 못지 않게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는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보여지며, 가족의 친밀감이 경제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주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부의 가족내 위상확립과 함께 밀착된 가족응집력과 융통적인 가족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각적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주부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력이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부의 경제복지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보다 용어정의가 요구되어진다. 만족감, 만족도, 복지감 등 용어정의와 함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복지척도의 표준화된 척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복지감척도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행연구와 연관지어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통해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경제복지감의 증진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주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대는 자본주의 경제로 모든 행복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측정하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수준 못지않게 가족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삶의 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연구. *속대논문집*. 33, pp.31-56.
- 2)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 주관적 경제수준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전인선(1983). 가족집단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5) 통계청(1996) 통계분석자료 모음. 통계청.
- 6) 통계청(1996) 한국인의 사회지표. 통계청.
- 7) Berry, R.E. & F.L. Williams(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49), pp.107-116.
- 8) Danielwicz A.J.T(1978). Determinants of wife's perception of income adequacy. University of Illinois. PhD.
- 9) Emmons R.A. & E. D. Diener(1985). Factors predictiong satisfaction judgements :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 Vol.16, pp.157-167.
- 10) Galligan R.J. & S.J. Bahr(1978). Economic well-being and marit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income maintenance progra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283-290.
- 11) Hafstrom J. & M.M. Dunsing(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2(2), pp. 119-132.
- 12) Jean, M.Lown(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pp.5-8.

- 13) Mammen S., Hwllich S.A. & E.J. Metzen(1983). Factors affecting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University of Illinois.
- 14)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15) Mueller, M.J. & T.K. Hira (1984). A managerial systems approach to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s solvency status. *Proceedings of South Beasern Regional Association Family Economics ; Home management Conference*, Blacksburg, Virginia.
- 16) Olson, D.H. & J.Portner(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n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17) Olson D.H., Portner J. & Y.Lavee(1985). Faces III manual. University of Minnesota.
- 18) Wilhelm, M.S. & D.R. Iams(1986).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husband and wife consensu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 144-152.
- 19) Wilhelm, M.S., Iams D.R. & C.A. Ridley(1987), Changes in consumption management during unemployment their impact on economic satisfaction.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 59-65.
- 20) Williams, F.L.(1985). Family & personal resource management a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Washington D. 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1) Winter M., Earl W.Morris & Maria de L.Rubic (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293-299.
- 22) Winter M., Morris E. & E. Rubic(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Vol.34, pp.293-299.